

# 맥주 가격 오른다...국산차 개소세 30만 ↓

맥주·막걸리 소폭 인상...맥주 리터당 30.5원 ↑

고령자, 작은 주택 이사시 연금계좌 1억 추가

올해 4월 이후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ㄹ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가구 종전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연금저축, 개인회피직연금 등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해 비교과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맥주 ㄹ당 885.7원 세금 부과... 30.5원 ↑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ㄹ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

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ㄹ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고령가구, 작은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정부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문화지원 차액에 대해 연금저축, 개인회피직연금 등 연금 계좌 추가납입을 1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즉 보유한 주택을 팔고 가격이 낮은 신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해져 비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며 종전 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입금액은 종전 주택 가격에서 신규주택 취득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종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종전 주택보다 큰 가격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 계좌에서 5년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억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주면 연금 계좌 운용 기간 비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이내 작은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큰 주택을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남도장터' 지난해 매출액 600억 돌파

역대 최고실적...최근 5년간 100배 이상 급성장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3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5억4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남도장터는 2020년 326억원에 이어 2022년 600억원을 돌파해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뒀다.

2021년도 매출액(552억)과 비교하면 9%를 초과 달성했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입점 업체와 상품을 다양화하고 비활성화 업체에는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또 설?추석 명절 특판행사도 김장대전 등 각종 기획전의 합인 이벤트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 경매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해 생산자는 농산물 제값 받기를, 구매자는 신선도 높은 상품을 배송받도록 함으로써 전남산 농산물 거래에 앞장선 것도 한몫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남도장터 쇼핑



몰에는 1826개 업체가 입점해 3만 3217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회원 수도 약 41만 20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매객은 수도권이 26%, 비수도권이 74%를 차지한다.

남도장터의 10대 인기 상품으로 쌀, 소고기, 약과, 돼지고기, 닭고기, 배, 사인머스켓, 전복, 김치, 계란이 차지했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은 쌀, 배, 사인머스켓, 감자, 고구마 등으로 파악됐다.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에는 전복, 장어, 홍어, 조기, 바지락 등이, 가공식품은 약과, 김치, 간장게장, 참기름, 꽃감 등이 인기를 끌었다.

/권형안 기자

## 한전 상임감사 공모 15명 지원

'5명 압축'...인사검증 돌입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회 후보가 5배수로 압축돼 인사검증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력산업이나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전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5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배수로 압축된 후보자는 규정 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유력 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 경력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후보자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검증을 포함한 상임감사위원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최종 후보자를 임시 주주총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선임 절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날짜를 확정 후 2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월 초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2년인 한전 상임감사는 사장, 경영관리부사장, 안전·사업부사장, 미래전략기획본부장, 전력그리드본부장, 해외원전본부장 등과 함께 7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에 포함된다.

그간 한전 상임감사 자리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전력산업이나 감사 분야 전문가보다는 소위 정치권의 입김이 미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꽂히면서 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설맛이 장보기 행사

구례교육지원청은 설을 앞둔 18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설맛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구례교육청 제공

## 올해 농가소득 4802만원 전망...쌀값 9% 뛼 듯

작년 농업 생산액 58조6천억...올해는 소폭 준 57조9천억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는 반등하며 4800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쌀 가격은 시장공급물량이 줄어 작년 수확기 대비 9% 증가하고 계획대로 적정 생산 면적을 달성할 경우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생산액은 2022년보다 1.0% 감소한 58조63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배업 생산액은 식량작물·과실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33조1230억원, 축산업과 양잠업

을 더한 축잡업 생산액은 돼지·닭·오리 가격 상승으로 3.7% 증가한 25조5080억원이다.

작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 추정된다.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105만원이다.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5.3% 늘고, 이전소득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0.3%)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상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57조9340억원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쌀 생산량 감소와 주요 과실 품목의 생산 저하 등으로

전년 대비 0.6% 줄고, 중장기적으로는 채소, 과실 등의 생산액이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축잡업 생산액은 한우·돼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육류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1.2% 상승할 것으로 봤다.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4800만원대(4802만원)로 올라설 전망이다.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으로 추산됐다. 농외소득은 농업노임 하락 등 사업외소득 감소로 전년 대비 2.3% 주는 반면,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경상소득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에서 회복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 지난해 항공교통량 하루 평균 1479대 16% ↑ '회복세'

11월 하루 1709대...12월8일 1843대 최대

지난해 국내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54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46만5469편 보다 16% 증가한 53만9000여대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일평균 1479편의 항공기가 운항했다.

지난해 중 하늘길이 가장 북비는 달은 11월로 하루평균 1709대로 기록됐으며, 가장 바쁜 날은 12월8일로 1843대가 운항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교통량은 지난 2020년 4월 코

로나19로 최저를 기록한 후 안전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36% 여객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국제선 활성화를 재개하면서 기존 동남아와 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의 심리 회복이 국제선 항공교통량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선은 지방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제주와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와 4.5% 상승하

면서 지난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제선 활성화를 재개한 6월 이후 국내 입출국 항공기 약 45%가 동남아와 남중국 방면 항공로를 이용해 가장 바쁜 하늘길로 집계됐다. 그 뒤로는 미주·일본(약 29%), 중국·유럽(약 19%)이 그 뒤를 이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주변 국가의 방역 정책이 항공 교통량 증가 추이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그간 닫혔던 하늘길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 '특례보금자리론' 고민하는 영끌족

대출금리 전월대비 0.05% 하락...11개월만에 내려

대출금리가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이달 말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을 놓고 '영끌족'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고정금리 정책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6일 공시한 12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코픽스 이후 11개월 만에 전월보다 내린 것이다.

이를 반영해 시중은행들도 줄줄

이 변동금리 조정에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날 기준 연 4.69~7.43%로, 전일 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고정(혼합형)주택담보금리도 하락 추세다. 전일 기준 5대 은행의 고정금리는 연 4.36~6.37% 수준으로, 1주일 전(연 4.63~6.55%) 보다 0.18~0.2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 하락 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확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를 사실상 최대 연 0.9%포인트 인하했다.

이처럼 근 1년간 치솟던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자 영끌족 등은 일단 인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